

과학기술과 인간정신: Science & Sapience

제 4 강

로마제국의 과학기술과 인간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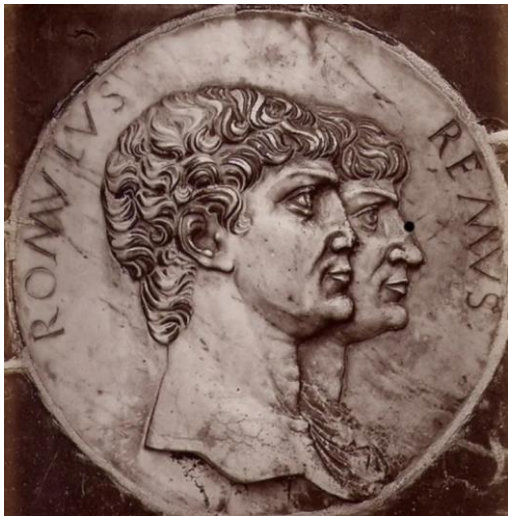
이 재 영

한동대학교

2023-1 Spring Semester

로물루스: 로마의 탄생

Romulus



Romulus and his twin brother Remus from a 15th century frieze, Certosa di Pavia

출 생

BC 8세기

로마건국

BC 753 4월 21일

사 망

BC 716 (37년 제위)

신의 아이

알바롱가 왕국의 공주 레아 실비아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동생 아물리우스 때문에 베스타 신전의 사제가 되었으나, 마르스신의 쌍둥이를 임신하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난다.

바구니 늑대소년

아물리우스 왕은 이들을 바구니에 담아 티베리스 강에 버렸으나 팔라티움 언덕 근처의 무화과 나무 옆에 도달했고 암컷 늑대에게 건져져 키워지게 된다. 둘은 암컷 늑대의 젖과 딱따구리가 물어 다 주는 것을 먹으며 지내게 된다.

원수를 갚고 새도시 건설을 계획함

양치기 파우스툴루스가 키우게 되는데, 레무스가 도둑맞은 양떼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을 때, 그는 아기 바구니를 보여주어 레아 실비아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이들은 자신의 원수인 아물리우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죽인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알바롱가의 외조부 외조부 누미토르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자신의 바구니가 발견된 팔라티움 언덕에 새로운 도시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

도시결정과 단독자

도시선정을 놓고 동생과 의견이 갈렸는데, 로물루스는 로마 광장이 있는 팔라티움 언덕을, 레무스는 아벤티누스 언덕을 주장했고 독수리 점을 치다가 싸움이 나서 동생이 죽는다.

로마의 탄생

레무스가 죽은 후 로물루스는 팔라티움 언덕에 도시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이름 짓게 된다. 건국 당시 로물루스는 토스카나에서 불러온 사람들과 고서적들을 통해 신성한 풍습을 비롯한 여러 규칙을 정한다. 건국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지만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마르쿠스 바로의 견해에 따라 **기원전 753년 4월 21일**로 여긴다. 이날 로물루스는 흰 암소와 수소에 쟁기를 매서 깊은 도랑을 팠고 이를 도시 성벽의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이 경계는 성역으로 지정되었고 후에 '포메리움'으로 명명되었다.

로마공화국의 끝: 율리시스 카이사르

Julius Caesar



출 생

100BC 7월 12/13일

사 망

44BC 3월 16일 (55세)

요약

정치가, 군인, 성직자, 작가, 황제의 시초: 본인은 황제가 된 적이 없으나, 그의 이름은 양자이자 정치적 상속자 아우구스투스에게 그대로 전해진 데다, 아우구스투스가 취한 제호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 제호 기본 틀로 정착되면서 황제라는 의미로 남게 되었다.

가문과 출생

알바롱가의 가문으로 로마의 탄생의 모태가 된 가문이나 몰락하여 신흥귀족들에게 밀려고, 생계를 위해 밀가루 제분이나 기타의 일들로 생계를 했으나 가문의 이름으로 사제 신분을 유지하는 정도였기에 그가 성직자의 위치도 있었다.

- 7년간 갈리아 전투 (이때 갈리아 전투 7권 완성)
- 3년간 내전 (이것도 책으로 완성)
-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클레오파트라 7세와 동거하여 아이를 낳음 (50세/ 20세)
- 3두 정치의 실력자들과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하고 원로원에서 종신 독재자로 임명 받음 (BC 44년 2월)
- 그러나 정적들의 음모로 BC 44년 3월 15일 원로원에서 60여명에 둘러싸여 난자당함
- 그는 공화정의 3두 정치가 보여주는 정치적 난맥상을 정리하고 가장 위대한 전쟁영웅으로서 로마를 세우려는 야심찬 사람이었으며, 이후에 전개된 2차 3두정치를 종결하고 로마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황제의 길을 보여주었음
-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어 율리우스 력을 선포하기도 했음

로마제국의 탄생: 아우구스투스

Imperator Augustus



출 생

BC 63년 9월 23일

사 망

AD 14년 8월 19일 (76세)

카이사르의 조카

카이사르의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로, 카이사르 유언장에 따라 그의 양자이자 후계자가 되었다.

제2차 3두정치

기원전 43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와 연합해 제2차 삼두정치 시대

악티움 해전

최후의 경쟁자였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오랜 내전은 기원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 (안토니우스 살해, 클레오파트라 자살)

PAX Romana의 시작

로마의 초기 200년간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PAX Romana를 열어낸 것은 그가 비교적 오래 살아 긴 제위 기간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하였고, 안정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이며, 200년간 5현제가 탄생할 정도로 황제들이 훌륭했음. 그러나 네로 황제 등의 악덕한 황제들도 있었음

로마제국의 탄생: 클레오파트라

Cleopatra



출 생

BC 69년

사 망

BC 30년 (39년)

파라오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실질적 마지막 군주이자,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다 .

기원전 51년, 부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집트의 당시 전통인 근친 결혼에 따라 18세 나이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어린 남동생을 배제하고 전권을 차지하려한 그녀의 움직임은 실패하고 지방으로 쫓겨났다.

However, 자신의 정적 폼페이우스를 암살한 것이 비겁한 행동이라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꾸짖으러 온 율리시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났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군대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공격했으나 구원군 도착으로 패해 살해당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들(프톨레마이오스 14세)과 결혼하여 파라오의 지위를 유지하게되고, 전권을 갖는다. 또한 카이사르의 아들과 딸을 낳는다. (결혼은 없었음)

이후 카이사르가 살해되자, 로마의 권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2차 삼두정치에 등장한 유력인물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카이사르의 조카인 옥타비우스(아우구스투스) 보다 우선시 한다.

안토니우스는 정복전쟁에 이집트의 후원을 요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지원하였으며, 전쟁은 승리하고, 안토니우스의 위상은 높아졌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했고, 이을 낳았으며. 모든 아이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제거하려는 전쟁을 했고, 이것은 악티움에서 해전으로 이루어졌다. 안토니우스-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은 패했고, 안토니우스는 살해 당했으며,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한 클레오파트라는 자결하여 야심 찬 생애를 마감했다. 이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1인자가 되고, 공화정을 끝내고 삼촌이 이루고자 했던 황제의 자리로 나간다.

로마제국의 탄생: 클레오파트라

Pax Romana 시대의 인간정신

스토아 철학

- ⇒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 제논의 생활철학
- ⇒ 세상은 불꽃(변화)과 로고스로 이루어졌다는 유물론에 입각하여 불꽃을 로고스로 감싸야 한다고 주장
- ⇒ 사람의 불꽃은 이루고자하는 욕망이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스토아적 현자임
- ⇒ 행복은 불꽃을 제어한 상태인 아파테이아(apatheia: a-pathos)
- ⇒ 제왕의 철학으로 자리함
 - 세네카: 네로황제의 스승
 - 에픽테투스: 마르쿠스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스승
- ⇒ PAX Romana를 유지한 정신적 자산으로 넘치는 부와 권력의 충동을 제어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의 근간이 됨



“우리는 우리의 선택(prohairesis)이다”

에픽테투스가 한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이에게 입 맞출 때, 조용히 중얼거리십시오. 이 아이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중에서

- ⇒ 에픽테토스(그리스어: Ἐπικτήτος, 라틴어: Epictetus, 55년경~135년경)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소아시아에서 노예로 출생하였으며 고문을 받아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는 이때 스토아 철학을 배웠으며 노예에서 해방되자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다. 그의 사상은 의지의 철학으로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로울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는 신을 생각하였다. 그는 아무런 저서도 쓰지 않았으나 제자인 아리아노스가 그의 강의를 간추려 쓴 《어록》, 《제요》가 있다.

Post-Pax Romana 시대의 인간정신

기독교 정신

- ⇒ 10000명이 안되던 기독교도의 숫자가 100만명까지 늘어 나는 상황이 되었고, 콘스탄티노프 대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결정적임
- ⇒ 기독교의 근검 겸손의 정신이 스토아적 철학과 잘 연결되고 있으며, 이웃사랑의 정신은 더욱 깊은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줌
- ⇒ 제국은 종족마다 다양한 종교를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로마의 힘의 절대우위는 기독교의 일신교리로 국가가 통치될 수 있음을 입증함
- ⇒ 반면 이는 게르만이나 훈족과 같은 이교도들의 종교로 갈등의 소지를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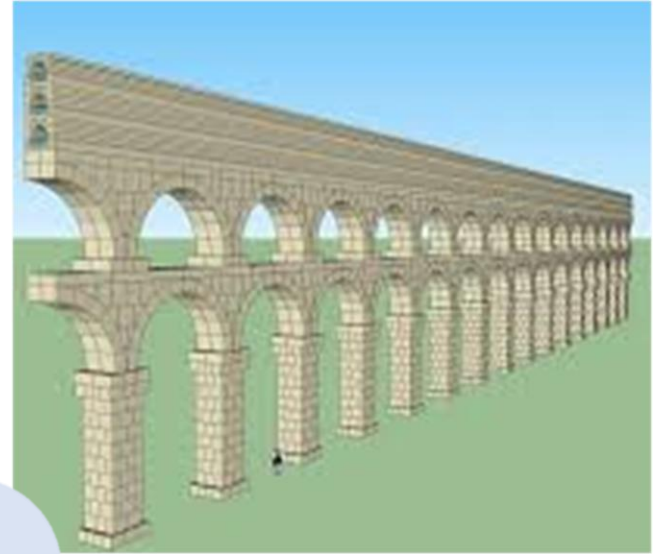
서로마의 멸망

- ⇒ 니케아 종교회의 (AD313)이후 100년도 되지 않아 서로마는 바바리안들의 공격으로 멸망함
- ⇒ 반달족과 고트족의 공격으로 로마가 함락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결국 게르만족의 공격으로 서로마는 멸망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한 동로마제국이 1000년을 유지하였으나, 이 역시 오스만투르크에 의해 멸망함

로마의 생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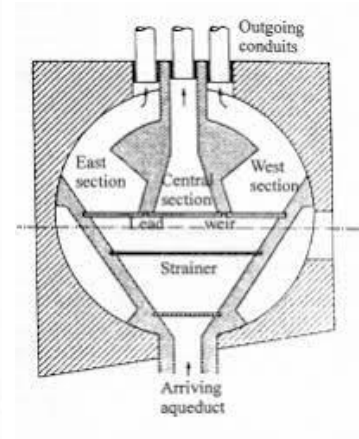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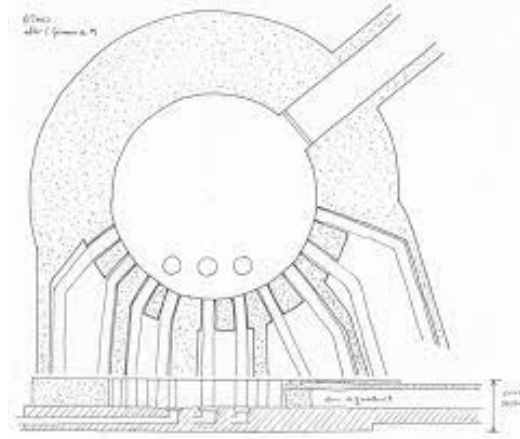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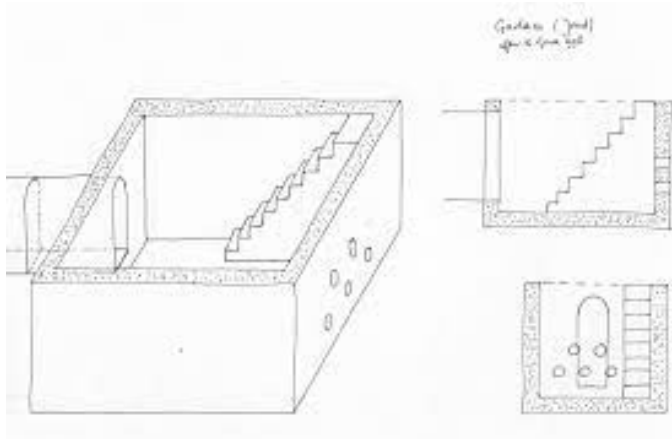
로마시대: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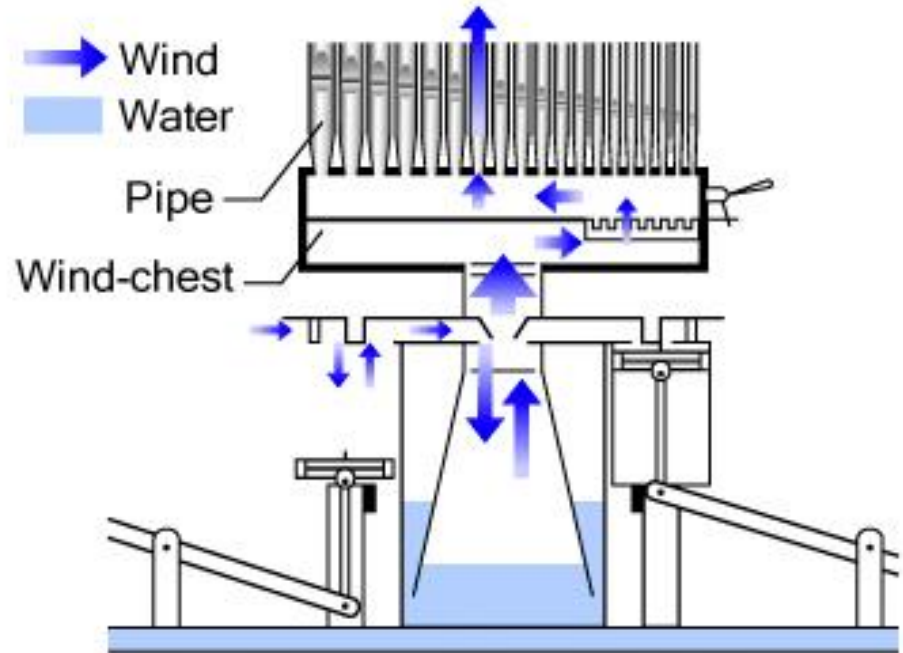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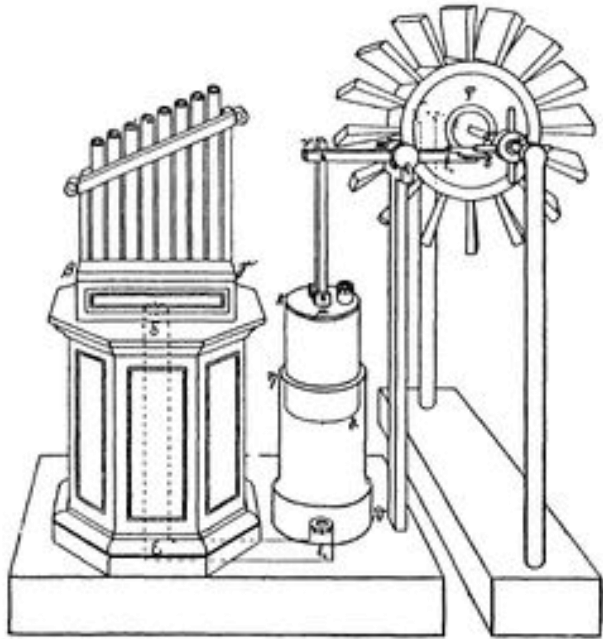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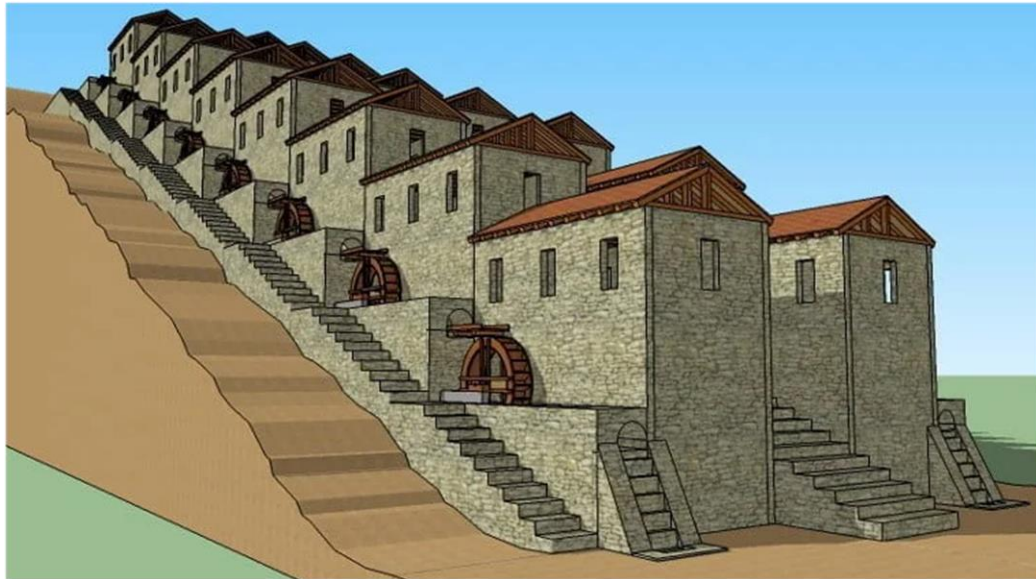
로마시대: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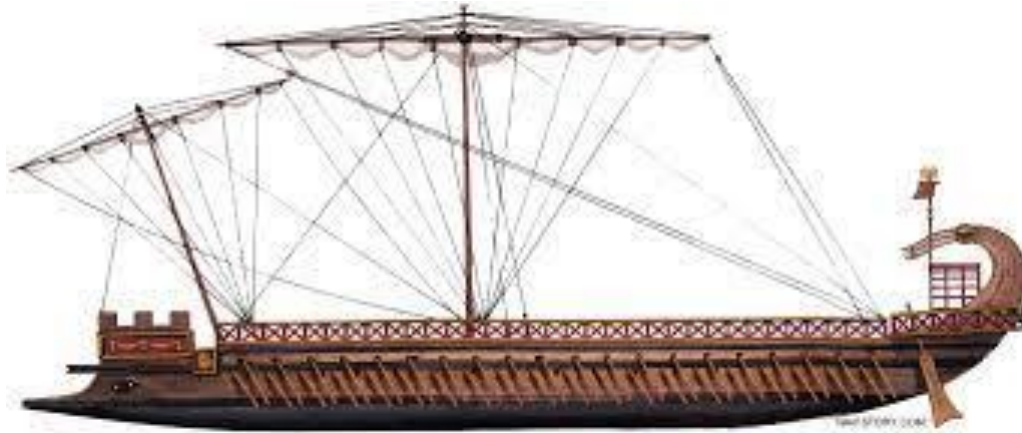
로마시대: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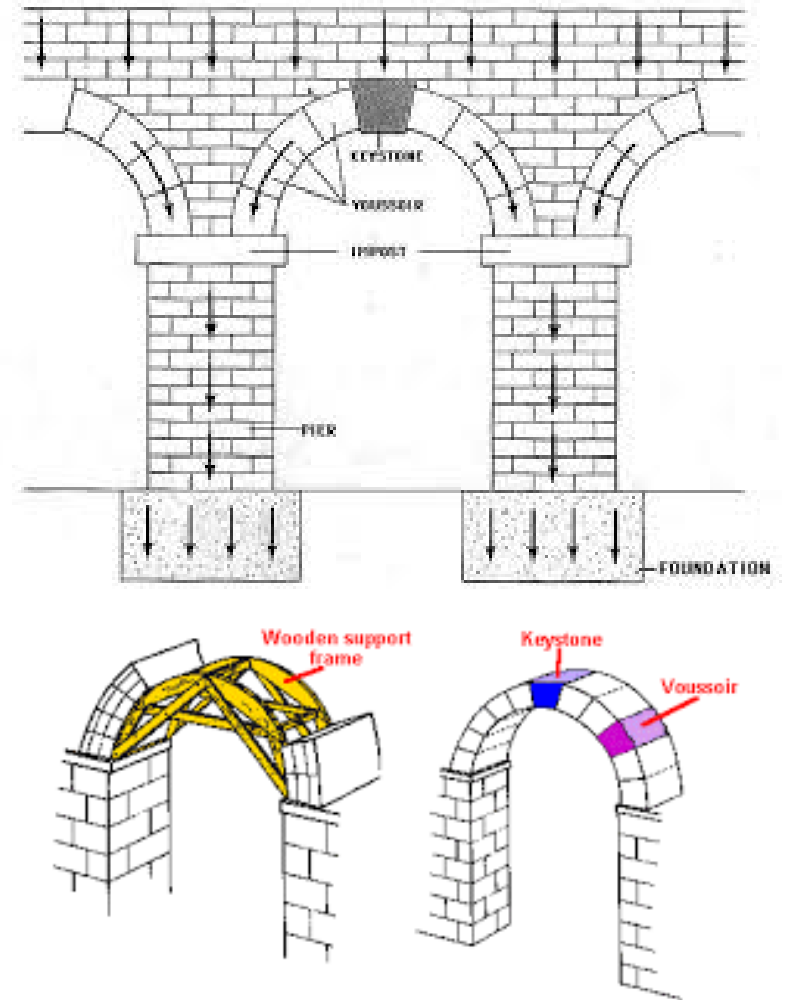
로마시대: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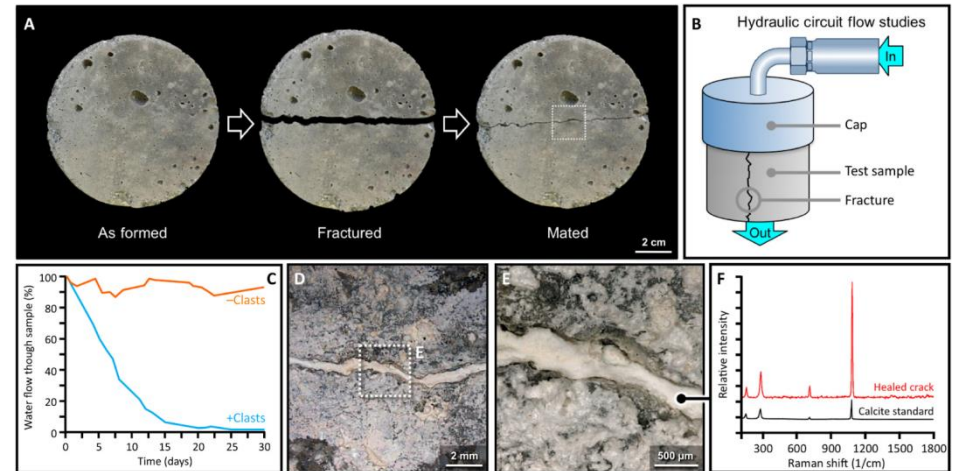
로마시대: 물의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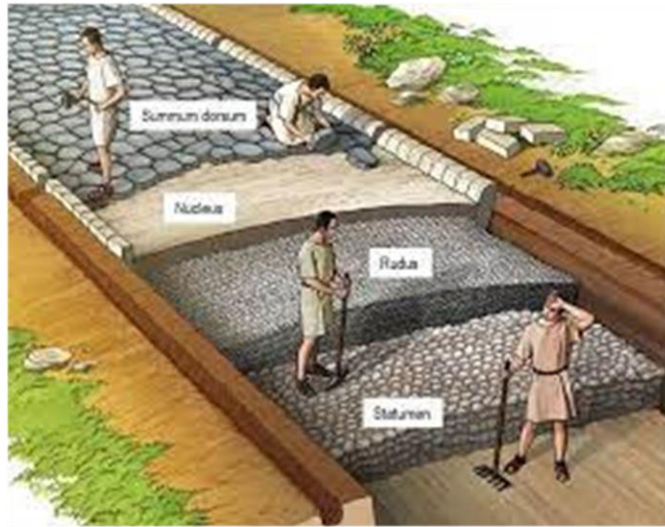
로마시대: 건축 과학기술



로마시대: Ultra Durable Concrete



로마시대: Road Construction



- 4) Paving stones formed the surface of the road. These were cut so they fitted together tightly.
- 5) Kerb stones at the sides held in the paving stones and made a channel for the water to run away.
- 3) Cement mixed with broken tiles
- 2) Broken stones, pebbles, cement and sand to make a firm base.
- 1) At the bottom of the trench, the Romans put a big layer of stones.

로마시대: Poison